

##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교계 나선다

LA 한인 정치력 신장 시급한 문제... 이번 놓치면 10년 뒤 가능

LA 지역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한인단체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위원회(CRC)가 지난 25일 공개한 공식 시 선거구 재조정안 초안에 따르면, 한인타운이 여전히 4개의 선거구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는 한인 유권자들의 정치력이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가주교협, 한인회, 한인민주당 협회,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 등 10개 한인단체들은 1월 27일 교협 사무실과 1월 30일 LA인회 사무실에서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단일화를 위한 3만명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선거구는 10년마다 재조정되기에 올해 한인타운을 포함하는 선거구를 하나로 통합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 단체들은 동서로는 웨스턴부터 버몬트까지, 남북으로는 올림픽부터 101 프리웨이를 경계로 하는 구역까지를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할 것을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변영의 교협회장(우측 다섯번째)이 선거구 단일화와 관련해 교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한 서명운동을 2월 11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한인들이 향후의 변화에 민감하게 주목하고 공동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교협은 각 한인교회들에 선거구 단일화 촉구 서명용지를 배포해 성도들의 서명을 받기로 했다.

변영의 회장은 "매우 긴박하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며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위해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현 총무는 "선거구 단일화 여부에 따라 LA 한인 삶의 질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된다"고 말했다.

선거구 재조정위는 2월 한달 동안 각 지역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2월 말에 최종안을 마련, 3월 초 이를 시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시의회는 오는 7월 전 최종 선거구 재조정안을 확정짓는다.

토마스 맹 기자

##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홍순현 회장 취임



예배에 참석한 목회자와 장로들이 홍순현 신임회장에게 안수하고 있다.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이·취임 감사예배가 29일 오후 5시에 만나 교회(남강식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새 회장에 홍순현 장로가 취임했고 증경회장으로 하기언 장로가 임명됐다.

홍순현 장로(한소망교회)는 취임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청지기로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린다"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한 알의 밀알과 겨자씨가 되어 울 한 해 남가주 지역을 충성되이 섬기는 장로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한국장로회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일량 장로는 "홍순현 회장과 임원들, 전 회원들의 화합과 헌신으로 장로협의회가 더욱 부흥 성장하

길 바란다"며 "장로들의 위상을 높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협회로 발전하게 될 것을 굳게 믿는다"고 축사했다.

이날 예배는 사회에 박남수 장로, 기도예송 장로(증경회장), 찬양에 주님의영광교회 글로리찬양대, 설교에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 헌금기도에 박광원 장로(부회장), 찬양에 한소망교회 성가대, 남가주장로성가중창단, 광고에 유이상 장로, 축도에 지영환 목사(한소망교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식사기도는 이화룡 장로(고문)가 했다.

또 하기언 장로에게 공로패, 홍순현 장로에게 축하패, 홍성표 목사와 오승홍 장로에게 감사패가 각각 전달됐다.

토마스 맹 기자

## INTERVIEW

### 목회의 최고 우선 순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한국 성은교회 담임 장재호 목사는 현재 80이 넘는 노령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전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쓰고 있다. 그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과거와 현재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목회자와의 관계"라고 후배들에게 조언한다.

그는 후배들의 설교에 있어서도 일침을 놓는다. "목회자는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하심을 대언해야 한다"며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 중에 천국에 들어갈 성도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늘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말재간이 아닌 성령의 감동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당부한다.

장 목사는 "교회에 핏박이 없다면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에 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며 "오히려 핏박이 있을 때 교회는 더 단결하게 되어 사단의 계계를 물리치고 부흥 성장의 길에 올라서는 것이 나의 목회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날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를 섬기길 소망한다"고 말



장재호 목사

했다.

장재호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제79, 83, 84회 총회장을 지냈으며, 국제신학대학원 초대 총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전국기독교총연합회 총재, 성경세계복음화협의회 총재 등을 역임했으며, 2010년에 분국 한국일보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국민감동 그랑프리 대상(종교 지도자 부문)을 받기도 했다.

또 그의 목회 일대기는 CBS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전국에 방송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처럼 목회해 온 그의 목회 여정을 직접 들어 본다.

→ 2면에 계속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가 맡은 대형 교통사고, 음주운전, 형사사건은 재판결과가 달라집니다.**  
\$3천9백만불 CHP 경찰 전신 마비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213-386-5500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www.easy2424.com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s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고객이 원하는 여행, 그 이상의 감동여행 ~  
www.usajutour.com  
기독일보 창간 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세상의 존경을 받는 당신을 위한 아주관광만의 특별 서비스!

- 창사 29주년의 저력과 노하우**  
1984년 설립 이후, 언제나 고객 곁에서 업계 최고로 인정받는 서비스와 여행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설적 성장해 왔습니다. 사반세기(四半世紀) 경험으로 얻은 **완성도 높은 여행을 체험하십시오.**
- 5대양 6대주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  
차별화된 전문성과 전세계 각지 일등 관광관련업체와의 파트너십 강화로 고객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명품 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사직원과 현지가이드 2인 입체시스템, 믿음직한 동행과 함께 하세요.
- 어느곳이든 초특급 5스타 호텔은 기본**  
전세계 어느곳이든 5스타 호텔 숙박, 각 지역 특별시 제공 편안, 여유 그리고 통격까지 담았습니다. 여행, 최고급 호텔에 머무르셔야 격이 맞습니다. 그 차이를 경험하십시오.
- 업계 최초 관광진흥 대통령상 수상**  
고객 여러분들의 격려에 힘입어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관광의 날 행사에서 미주업계 최초로 관광진흥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배려해주신 후의와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1 연속 고객만족도 1위 (관광진흥부 주관)

SINCE 1984 - 관광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믿음직한 명품관광은 역시 아주관광입니다!  
대표 전화 (213)388-4000 1-800-933-3011  
서울 02-522-8686  
아주크루즈: 213-388-7000 동부: 800-956-3939 토렌스: 310-217-0770  
O.C./샌디에고: 800-994-1233 833 S. Western Ave #35-A L.A., CA 90005

아주관광 LA주최 "백만불 대통령상" 수상  
백만불 관광진흥 장려탑

한국 성은교회 장재호 목사 인터뷰

# 목회의 성공 비결 “오로지 예수님만으로”



-어떻게 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셨습니까? 그 목회의 길을 돌아 보신다면?

저는 고등학교 시절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압제당하고 착취당한 역사를 배우며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일본을 오른쪽 날개, 중국을 왼쪽 날개 삼아 비상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살 뿐 아니라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종으로 쓰시기 위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신학대학교에 가서 목회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면서 복음 증거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령 사업에 항거로운 제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인위적인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절망의 상황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사명과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고 믿음을 연단시켜 주셨기 때문에 55년간 교회 개척과 부흥성장을 통해 155개국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모

든 것이 나의 계획으로 된 것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날마다 제 부족한 점을 절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합당하게 쓰임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구로 합당하게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보람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긴 목회를 해 오시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간증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반드시 환란과 핍박을 당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생지옥과 같은 세상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교회를 허물어 쓰러려고 훼방과 행패까지 부린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단으로부터 시기, 질투, 환란, 대적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성은교회는 많은 도전과 훼방, 환란을 겪을 때마다 영적인 결속을 다지고 더욱 성숙해 갔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없을 때는 교회가 늘어집니다. 교인들도 세상에 대한 기대와 꿈에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향한 대적과 훼방, 풍파를 일으킬 때 교회는 진리 안에서 하나됩니다. 영적인 공동체로 합심 단결하여 목숨을 걸고라도 결속해야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는 보존됩니다. 많은 환란을 겪으면서 교회는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지금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 이제 놓여준 교회를 지원하고 전국 곳곳에 지교회들을 세우고 120개국 교회

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처음 서울 옥수동에서 개척할 때 그 지역 남성들은 직업도 없고 일하러 갈 곳도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생계를 위해 파출부 일이나 허드렛일을 하면서 몇 푼 벌여와 자녀를 양육했는데, 그 당시 남자들은 나무 그늘에 앉아 장기나 바둑을 두면서 술 마시고 싸움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난치병이나 불치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갈 형편이 안됐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전도하면서 그들이 결국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우들이 치유되고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일들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저를 불태워 쓰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벌어진 일들입니다.

한번은 교회를 부수야 한다고 한자 100여명이 쇠파대기를 들고 쳐들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역사하심으로 성은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쓰임받으니 교회가 영적 공동체로 서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목회란 과연 무엇일까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끌리어 하나님 지시와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할 때 안되는 게 없고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자기의 의지적인 계획이나 목적을 세우고 인위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시도한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실패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자기 땀에는 해 보겠다고 몸부림치지만 아무리 해도 안되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려운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자꾸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이 모양인가”하고 자학하면서 “왜 내가 목사가 됐나”하고 후회도 합니다. 지속한 표현으로 미칠 지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무어 안타깝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목회했냐고 물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누가 당신을 세웠습니까”, “누가 원해서 당신이 목회자가 되었습니까”입니다. 그러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행동해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충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쓰임 받도록 새 출발하시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아닌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할 때 그 일은 시작부터 실패가 뻔한 일이 아니겠냐고 말합니다. ‘내 안에 나는 없고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인생을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세요. 맡기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들고 쓰실 겁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목회자들은 성령이 이끌리어 교회와 영적으로 뜨거워지고 은혜로운 분위기가 새로 들어와 심령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설교나 메시지 전달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1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설교가 3000명을 회개하게 한 것은

무식쟁이 베드로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지금의 목회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설교집을 짜집기해서 설교를 한다면 말씀을 듣는 양들이 얼마나 불쌍한 양들이 되겠습니까. 성령이 대언하게 하는대로 말씀을 공급해야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라, 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하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 비법은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에 사로 잡히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 하심을, 구원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능력 있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에 부딪혀 깨어지고 녹아지는 심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인생이 하늘나라에 가기를 중심으로 바랄 때 구원이 임하는 곳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의지로는 믿음을 지키거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시고 일꾼으로 사용하시다가 하늘나라로 데려 가십니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말한다면 정통한 진리의 말씀이 대언에 의해서 선포되어져서 회개하고 거듭나는 심령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토마스 갱 기자

**TOP MEDIA**  
교회설교 CD제작  
성가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3170 E. 11th St., Los Angeles, CA 90023  
www.topmediausa.com topmediausa@yahoo.com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사건,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 취업전문의 직업대학 ORT 연방정부 학력공인대학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건축설계...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의사보조... Medical Assistant  
약사보조... Pharmacy Technician

ESL...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 1~6단계, 회화반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어카운팅 AAS 학사취득... Accounting (AA Degree)  
그래픽,포토샵...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오전, 오후, 저녁
-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Advice**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방문비자(B1,B2)를 학생비자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Q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http://www.LAORT.edu)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818.382.6000

Bus 20분 ORT  
Lajolla Fairfax  
맥드넬드 Wilshire

상담필수 오전 8:30~1:30  
한국인 상담 : 그레이스  
직통 (213) 703-6863  
(323) 966-5444  
(213) 278-5927 그레이 리 (Greg Lee)

상담: 그레이스 (Grace)

# 사랑의 쌀 나누기 올해도 성공적

## 불우이웃에게 종교와 지역 넘어 1만350포 전달해

지난해 말 남가주 한인교계가 주축이 되어 모은 사랑의 쌀이 150여개 사회봉사단체와 교회들 통해 불우이웃들에게 총1만350포 전달됐다.

행사를 주최했던 미주성서화운동, 홀리클럽, 주관했던 미기총, 남가주교협, OC교협 관계자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역을 보고했다.

이들에 따르면, 불우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120여개 단체와 교회, 개인후원자들이 기금을 마련했다. 그리고 이 기금으로 총 1만350포가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로스앤젤레스, 오렌지카운티, 얼바인, 패서디나 등 남가주는 물론 라스베가스, 마이애미, 애리조나에도 사랑의 쌀이 전달됐다. 종교를 넘어 기독교뿐 아니라 원불교, 불



미기총 송정명 대표회장, 성서화운동 최문환 이사장, 박희민 대표회장, 한기형 상임회장, 이성우 상임본부장

교, 천주교 등 타 종교 관련 기관에서도 쌀 배부가 이뤄졌다.

이번 나눔 운동의 총수입은 10만7578불, 총지출은 10만2820.56

불로 보고됐다. 잔액 4757.44불은 후속관리비 및 올해 행사 진행비로 이월됐다.

매년말 열리고 있는 이 행사는

한인교계와 한인사회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연합해 힘을 모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토마스 맹 기자

# 자생한방병원

## 한인교회 무료 진료로 섬긴다



### 무료로 치료, 감사헌금은 교회로 전액 환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인 자생한방병원이 남가주 한인들을 위해 의료선교를 펼쳐 주목된다.

자생한방병원의 윤제필 대표원장은 평소 선교 마인드를 갖고 의료 혜택을 선교와 전도에 접목시키고자 노력해 오던 중 이번에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의료분과위원장을 맡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오렌지카운티 지역 한인교회들에 먼저 이런 혜택을 베풀고자 하는 것이다.

첫 행사는 2월 5일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를 대상으로 한다. 성도들은 사전 예약을 통해 풀러튼에 위치한 자생한방병원의 분원을 방문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 과목은 침, 카이로프랙틱, 엑스레이, 체지방검사, 성장판 검사 등이다. 전액 무료이긴 하지만 내원자들이 자유롭게 감사헌금을 할 수 있으며 이 헌금은 전

액 교회 측으로 전달된다. 교회 입장에서 성도들이 무료 진료 고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또 성도들의 진료를 통해 자생한방병원의 감사헌금도 받아 교회 사역에 환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자생한방병원은 매달 이런 행사를 교회를 돌아가며 개최할 계획이다. 윤 대표원장은 "작지만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면서 "OC 지역부터 시작해 LA를 거쳐 타주까지 이런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생한방병원은 척추관절센터, 웰니스센터, 카이로프랙틱센터 등을 갖추고 각종 관절 및 디스크 클리닉, 산후 클리닉 및 자세교정 클리닉 등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714-773-7000  
1950 Sunnycrest Drive #2000  
Fullerton CA92835  
빅터 박 기자

# 10년간 변함없는 노숙자 사랑과 섬김 아름다워

## 소중사람들 창립 10주년 맞이해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거리 사역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소중한사람들(대표 김수철 목사, 구 거리선교회)의 창립 10주년 기념예배가 지난 1월 30일 정오 나성성결교회(정호훈 목사)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서 소중한사람들은 사역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많은 도움을 준 단체나 개인에게 감사드리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별히 이번 10주년을 맞이해 한국에 노숙자를 위한 일터까지 오픈하게 돼 감사가 더했다.

소중한사람들은 현재 다운타운 크로커 스트리트와 4가가 교차하는 곳에서 매일 오전 7시에 아침예배를 드리고 아침식사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리고 노숙자 재활센터를 운영해 노숙자들의 재활을 돕고 있고, 미국 뿐 아니라 멕시코에는

크리스천 학교를 운영한다. 더 나아가 중국, 미얀마, 아이티 등에 고아원을 운영할만큼 사역이 확대됐다. 서울과 LA에 각각 외국인노동자 쉼터와 노숙자 쉼터를 운영해 오고 있기도 하다.

이번 기념 예배에서 사회는 사무총장 김범용 목사, 대표기도는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회장 홍순현 장로, 설교는 주님의영광교회 신승훈 목사, 축사는 미주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송정명 목사와 한국장로회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일랑 장로가 맡았다.

이후에는 이 선교회를 돕고 있는 나성순복음교회 외 많은 교회들과 개인들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또 특별히 자신도 노숙자이면서 매일 식사 봉사를 돕고 있는 노숙자들이 나와 한인교회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고 안도



참석한 이들이 축하 계획을 자르고 있다. 사진 정중양이 대표 김수철 목사.

니오 비야라이고사 시장도 축사를 전해 왔다.

송정명 목사는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인데 예수께서 어린 소자를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노숙자들을 섬기고 있는 소중한사람들에게 감사할 것이다. 더욱 분발해 달라"고 격려했다.

김일랑 장로는 "10년동안 네 이

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축사에서 소정의 헌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소중한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이들은 전화 213-385-4515로 연락하거나 웹사이트 ppeople.org를 참고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빅터 박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빠른 자동차 보험 알선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를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24hr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교회 행사 용품을 한곳에서**

배너 포스터

교회, 임직패 감사패, 트로피 명찰 일체

간판부 Tel : (626) 965-6997

행사용품부 Tel : (626) 810-2621

19241 E. Colima Road, Rowland Heights, CA 91748

동부사인&트로피

**목(경부)**

노근 성하는 정통적인 요법을 늘리고 목근육의 긴장을 풀어, C7까지 되게 합니다. 학생, 사무원의 가벼운 목디스크 예방합니다.

**통상부**

급은 통을 때웁니다 (학생사무원, 비만예방,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

NOVEL BACK 30 30년 30년 GUARANTEED

please call (888) 516-2291 or visit us at [www.SaeArc.com](http://www.SaeArc.com)

# 장재효 목사 초청 집회

**집회 일정**

- 2월5일(일) 오전 11시 조이시티교회(강신성 담임목사)
- 2월8일(수) 오후 7시 엠마오장로교회(김민섭 담임목사)
- 2월12일(일) 오전 11시 엘바인 한민음교회(최상준 담임목사)

**약력소개**

- 총회신학대학원 졸업
- Faith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과정 이수
-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신교신학연구 과정 이수
- 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신학박사과정 이수
- Faith Evangelical Seminary 명예박사
- 국제성서복음선교회 총재
- 성령세계복음화위원회 총재 역임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역임
- 전국기도원 총 연합회 총재
- 성은종신기도원, 경로원, 수양관) 원장
-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자!**

주 관 : 국제성서복음선교회(International Holy Grace Gospel Mission)  
후 원 : 엠마오장로교회, 하나로커뮤니티교회, 남가주광염교회, 주님의교회

# MK들 앨범 발표하고 콘서트 개최



MK들로 구성된 CCM밴드 LIVING CANVAS가 앨범 TOUCH OF GRACE를 발표했다.

미국으로 유학 와 대학을 졸업한 선교사 자녀(MK)들이 찬양앨범을 제작해 앨범 발표 기념 특별 찬양집회와 감사예배를 27일 오후 6시에 세리토스장로교회(김한요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들은 그동안 정기적으로 찬양 집회를 개최해 오는 중에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보다 폭넓게 사용하자는 취지로 앨범을 제작했다. 그룹명은 <LIVING CANVAS>

이고 앨범 타이틀은 <TOUCH OF GRACE>이다. 이날 이들은 <GET UP GET UP>, <JESUS BLOOD> 등 총 5곡을 선보이며, 청중들로부터 많은 박수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 행사에는 특히 선교사 자녀들과 1.5세, 2세 청년들이 많이 참석해 관심을 드러냈다.

그룹 리더 신상원 전도사는 "앞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것이 저희의 꿈"이라며 "우리가 가진 음악의 달란트를 갖고 이 지역을 넘어 세계를 향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소망한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MK들의 이 사역을 후원해 온 GP선교회 미주대표 백운영 선교사는 "음악적으로 재능을 갖고 있는 MK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마음으로 1년 전부터 찬양을 시작했다"며 "앞으로 이들이 다른 언어로도 음악을 해 보자는 생각에 타갈로그어로도 곡을 써서 음악을 통해 부모님 세대보다 효과적으로 선교를 펼칠 수 있으리라 본다. 부모 세대의 열정과 MK들의 전문성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특별기고]

## MK 세계선교의 희망찬 씨앗들



백운영 선교사

미국의 대학에 와서 공부하는 한인 선교사 자녀(MK)들이 비공식적으로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겨울 방학에 갈 곳이 없습니다. 여름 방학은 석달 정도로 상당히 긴 시간이기에 이 기간동안 그들은 부모님의 선교지로 가기도 하지만 겨울 방학은 고작 두세 주 정도로 홀로 기숙사에 남거나 친구 집에 얹혀 눈치밥을 먹곤 합니다.

저희는 5년 전부터 매년 겨울에 이런 MK들을 모아서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로 세우기 위한 mKainos(mission for new Creation)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100명 정도의 대학생 이상되는 MK들이 함께 와서 수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비전을 받고 함께 위로도 받습니다. 그리고 두주간 이들이 묵을 수 있는 장소와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보통 1월 초에 새로운 힘을 얻고 대학 캠퍼스로 돌아 갑니다.

GP 선교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 사역에 여러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한 기도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MK들은 자신들의 은사와 전공 분야에 따라 자연스럽게 네트워킹이 형성되었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제일 첫번째 열매가 Living Canvas입니다. 자신들의 음악적 재능을 발견한 이들이 이를 통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5명으로 구성된 CCM밴드 멤버들은 유럽의 헝가리, 로마니아에서 레슨을 받았고 혼두라스에서 자연적으로 흥겨운 찬양을 몸에 익히면서 자라났습니다.

미국에 와서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찬양사역에 눈을 뜨고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

해서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직접 작곡, 작사를 영어와 한국어로 해 첫번째 앨범인 "Touch of Grace"를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특별한 것은 그 모든 과정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이 MK들은 이미 사랑교회, 온누리교회, GKYM 뿐 아니라 영어권 교회들, 더 확장되어 인도네시아 연합 선교대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스페니시로 앨범을 만들 계획까지 세우며 폭넓게 세계를 섬기는 것이 꿈입니다. 3개 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이 MK들에게 전 세계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역지입니다.

이들 덕분에 다른 분야에 소질이 있는 MK들도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을 공부하는 MK들, 의료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MK들, 교육분야를 공부하는 MK들, 신학을 공부하는 MK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네트워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는 1세가 디딤돌이 되어 주고 앞으로 2세 선교사들이 국제적인 감각과 영성을 겸비해 세계 선교에 귀한 사역을 하게 될 것을 저는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기도합니다.

백운영 선교사  
GP 선교회 미주 대표

## 미주한인재단-이민신학연구소 MOU 체결

미주한인사회 복음화와 발전에 노력할 것



미주한인재단과 이민신학연구소가 MOU를 체결하고 적극 협력기로 했다.

미주한인재단(전국총회장 박상원 장로)과 이민신학연구소(소장 오상철 박사)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미주 한인사회 복음화를 충실히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두 단체는 26일 오전에 가든스 윗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미주한인재단은 "미주한인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미주한인이민 기념행사와 관련해 기독교 행사를 매년 준비하고 있기에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민사회 복음화에 기여하고자 이민신학연구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주한인재단은 지난 9월 109주년 2012 미주한인의 날 기념 양국기 현기식 행사를 시작해 23일 LA 설날맞이 축제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두 단체의 양해각서 내용은 △미주한인사회 복음화 △미주한인재단이 추진하는 미주한인 교육 및 세미나와 학술대회 협력 △이민신학연구소의 북미주 전국한인교회 실태조사 결과에 의한 내셔널서베이 전략 테이블 모임 후원 및 적극 참여 △미주한인재단 각종 행사 협력 △학술대회 등 신학 관련자료 홍보 △매년 미주한인의 날 기념행사 공동 주최를 주관자로 하고 있다.

오상철 박사는 "두 단체가 양해

각서를 체결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6월 4일에 이민신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6월 25일에 지난 1년 동안 30만불을 투자한 바 있는 내셔널서베이를 발표하는 행사를 가지며, 7월에 있는 시카고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참석 후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빌리 그레함센터에 가서 그쪽 관계자들과 '선교사를 위한 기념비'를 세울 계획이다. 이 자리에 미주한인재단 관계자들을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상원 장로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미주 한인 한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받는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이민사회 이민자들이 선조들의 정신과 학문적 지식을 이어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민신학연구소와 협력하게 됐다"고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 남가주 52명 목회자 설교집 출판

5일 오후 풍성한교회에서 감사예배

전 회기인 제44대부터 남가주 한인목사회가 큰 뜻을 갖고 추진해 온 남가주 목회자 설교집이 출판된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이 설교집은 새생명비전교회 강준

민 목사를 비롯해 52명 남가주 목회자들의 기념비적인 설교가 수록되어 있다.

출판을 기념하는 감사예배는 오는 2월 5일 오후 5시 풍성한교회(2911 Beverly Bl. Los Angeles,

CA90057)에서 드리며 석태운 목사(경증회장)가 설교한다.

44대 회장인 박효우 목사와 출판준비위원장 정요한 목사는 "52명 목회자들의 주옥같은 설교를 모아 책으로 발간하게 돼 뜻깊다"며 "예배에 참석해 격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승민 기자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가가 없으세요?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P-H** Puente Hills  
Hyundai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용차,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 usajyk@gmail.com

## 수기치료 의료 선교사 수강생 모집

의료선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선교에는 매우 효과적이거나 전문의료인이 되려면 장기간의 의학 수업이 필요하며 과다한 학비의 부담이 필요합니다. 수기치료 의료선교사 과정은 단기간의 교육으로 다양한 의학분야의 필요한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여 완벽한 치료사를 육성합니다. 수기치료는 약품이나 기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손만을 사용하여 온갖 질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술입니다. 금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기 위해 의료선교사 육성,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 안내

**신청자격** :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으로 선교에 뜻이 있는 남녀

**모집대상** : 1. 목회자 또는 선교사 (해외 파송 선교사)  
2. 선교를 원하시는 평신도  
3. 단기선교 또는 의료선교 사역을 원하시는 교회 선교팀

**모집인원** : LA 지역 남녀 10명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원을 제한함)  
Orange County 지역 : 남녀 10명

**교육기간** : 총 20주 (매주 2회 2시간 교육)

**접수마감** : 2012년 2월 11일

**개강일자** : 2012년 2월 14일

**교육장소** : LA지역- 2836 8th St. #106, Los Angeles  
Orange County- 부활교회(아리랑 마켓 뒤)

**접수처** :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213-381-7273 / 213-605-2928  
charliespark@hanmail.net

### 교육내용 (한의학/ 카이로프랙틱/ 근육치료술)

1. 근육 교정학 : 각종 통증치료술 (근육 전문 치료술)
2. 체형 교정학 : 변형된 체형을 바로 잡는 교정술
3. 척추 교정학 : 변형된 척추를 교정하여 신경의 흐름을 도와줌
4. 영양 물리학 : 자연식요법 (난치병 예방 및 치료)

### 교육의 특징

본 재단의 수기치료 교육은 한의학, 카이로프랙틱, 근육 전문 치료를 종합 교육하므로 완벽한 치료사를 육성하는 전 세계의 유일한 의료선교사 육성 교육 기관입니다. 손을 사용한 치료 방법은 주님이 기적의 보이신 능력의 은사와 동일합니다.

### 수료 후 특전

1. 수료증 및 수기치료 의료선교사 자격증 수여
2. 해외 파송 선교사 후원하여 드립니다.

**의료선교 법인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2836 8th St. #106, Los Angeles, CA 90005 **문의전화** : 213-381-7273 / 213-605-2928

# OC한미교회 목사안수 장로장립 권사취임 창작 성가의 밤 개최

##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어 교회 섬길 것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주관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북미주개척교회 소속 한미교회(오세호 담임목사)에서 지난 1월 29일 주일 오후 3시 30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을 거행했다.

이날은 특별히 전인철 목사(삼위일체장로교회 국제총회 소속)와 윤영안 장로(한미교회 소속) 외 두 명의 장로와 네 명의 권사들이 세워졌다.

예배의 인도는 오세호 목사가 맡았고, 대표기도는 교육목사인 김호겸 목사가 맡았으며, 설교는 한미교회의 초대 목사였던 김연택 목사(미시간주 홀랜드교회)가 맡았다.

김 목사는 삼상 16장 6절에서 13절을 인용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안수받은 전인철 목사는 답사에서 "자격이 없지만 세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삼위일체장로교회



이날 임직된 전인철 목사와 교회 제직들이 오세호 담임목사와 기념촬영에 임했다.

국제총회가 작은교단이라서 더 일이 많겠구나 생각해서 자처하게 됐다"며 "늦게 출발하지만 그만큼 더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며 인사했다.

제직 임직식은 정영수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다. 기도는 양문국 목사(OC교협 중경회장)가, 권면은 OC교협 이사장이며 한미교회 2대 목사였던 윤성원 목사가 맡았다.

윤영민 목사(OC교협 회장)와 최승창 목사(북미주개척교회한인교협 중경회장)가 축사했고 전인철 목사가 축도했다.

빅터 박 기자



창작 성가의 밤에서 연주된 아름다운 곡들이 남가주 한인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제10회 창작 성가의 밤이 영장로교회(김혜성 목사)에서 개최됐다. 행사 주관은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후원은 미주한인장악회, 미주한국기독교문인협회에서 했다.

이날 성가의 밤에는 한인기독교합창단(지휘 백경관), California Master Chorale(지휘 김원재), 한아름선교합창단(지휘 이경호), CALA & CHORALEUM(지휘 이경원), 아이노스여성중창단(지휘 김혜정), 송실OB남성합창단(지휘 이영두) 등이 참여해 총 18곡을 찬양했으며 마지막 곡은 연합합창단이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로 장식했다.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황성삼 회장은 "주목같은 성가곡들로 참여해 주신 모든 출연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는 찬양의 도구로 널리 쓰임 받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 영적 전쟁의 원리 깨닫고 거듭나자

### 글로벌선교교회 영적 전쟁 세미나 개최

글로벌선교교회(김지성 담임목사)가 영적 전쟁 세미나를 1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김정한 선교사(SON 미니스트리 대표, 전 케냐선교사)가 초청됐다. 26일 열린 세미나에서 김정한 선교사는 "성경에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말하는가"란 주제로 강연했다.

김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며 "그러나 영적 원인들, 즉 죄와 영적 전쟁에 대한 무지, 세속적인 신앙 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 강의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영적 전쟁의 원리를 제시하고 매일이 원리를 적용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 아니라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목표

다"고 밝혔다.

이어 김 선교사는 "이 강의는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잘 알아감으로 이 세상에서 영적 능력을 회복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며 "늘 생활에 불평과 불만, 두려움, 걱정과 염려, 감사가 없는 성도들을 영적 군사로 만들어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선교사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면 미국과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 삶의 의미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선교사의 이번 강의는 김 선교사가 26년 전 케냐선교사로 출발해 현재 남가주에서 SON 미니스트리를 설립해 선교 활동을 펼치고, 한인 세계선교 운동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겪은 영적 전쟁을 통해 배운 성경적 원리를 바탕으로 했다.

토마스 맹 기자

## 생명살리기에 뜻 모이다



차원경 준비위원장, 마동환 준비위원장, 유문자 이사장, 최희선 큐레이터(한국문화원)

오는 3월 LA한국문화원에서는 소망소사이어티 주최로 생명살리기 소망갤러리 전시회가 열린다. 이 전시회를 통한 수익금은 빈곤층과 불우이웃, 해외 구제 등에 사용된다.

소망소사이어티 유문자 이사장은 최근 40년만에 집을 수리하며 그동안 기억 속에 잊혀 있었던 고가의 유물들을 발견하게 됐다. 그는 미술품들이 그저 집 안에 숨겨져 있는 것보다 많은 이들에게 공유되면 그 수익금을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게 됐다.

유 이사장은 "저와 뜻을 함께 하는 분들이 소장품을 기부해 주셔서 이번 전시회를 열게 됐다"며 "문화 예술을 통해 인종과 세대의 벽이 허물어지고 다 함께 생명 살리

는 일에 나서자"고 강조했다.

굿네이버스 USA의 마동환 이사장도 뜻을 함께 했다. 준비위원장을 맡은 그는 "지금까지 70여점의 작품들을 기증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기증받는다.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일치하는 분이면 누구나 환영한다"고 전했다.

모아진 기금은 빈곤층과 싱글맘 돕기, 아프리카 원주민 구호 등에 사용되며 수혜 대상은 이 전시회 혹은 준비 단체와 관련없는 인사들을 초빙해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이다.

김재원 LA한국문화원장은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작품에서부터 집안 깊숙히 묻혀 있던 소장품들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부한다기에 이번 전시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생각에 따라서 인생 달라져”

남가주동신교회(손병렬 목사)가 대구평산교회 이흥식 목사를 강사로 초청, 신년 부흥성회를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했다.

이흥식 목사는 29일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라'(롬8:5-11)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잘사는 사람들과 못사는 사람들의 차이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다"라며 "하나님이 쓰는 사람과 버리는 사람의 기준은 생각이다. 다했은 하나님 마음에 든 자였기 때문에 쓰임 받았다. 잘살기 바라면 생각을 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목사는 "생각이 어떻게 따라서 축복이 임할 수도 있고 저주와 악독이 따라올 수도 있다"며 "시간날 때마다 예수님과 성전을 생각하기 바란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기록돼 있다. 나쁜 생각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생각을 잘 단속하길 바란다. 반면에 하나님에 주는 생각은 감동을 준다"고 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말했다.

이번 전시회는 3월 1일부터 3일까지 LA한국문화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소망소사이어티는 장기기증 운동, 사별 가족을 위한 모임, 유

언서 작성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국제 구호 단체인 굿네이버스와 공동으로 아프리카에 소망우물파기 운동을 하고 있다.

빅터 박 기자

##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절세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세금고민으로 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1.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 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2. 국제/국내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이민 E-2
3. 세무감사 대행서비스
4. 온라인 상담 ( www.chungycpa.com )
5. 공증

상담환영 : T (213)387-2004  
주소 : 3130 Wilshire Bl. #405 이정운공인회계사&공증

## 출판기념감사에배

남가주한인목사회에서 준비한 설교집 '사랑의 하나님' 출판기념에배를 다음과 같이 드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가주에 계시는 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목사를 비롯한 52명 목사님들의 주옥같은 설교집이 나오게 되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참석하시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 시 : 2012년 2월 5일(주일) 오후 5시  
◇ 장 소 : 풍성한교회 (213-503-3355)  
29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57

\* 설 교 : 석태운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 중경회장)  
\* 후 원 : 새생명비전교회  
\* 문 의 : 213-422-9191  
\* 예배후 저녁식사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남 가 주 한 인 목 사 회

44대 회 장 박효우목사  
출판준비위원장 정요한목사

# 유동근 목사의 마태복음 강해

## 〈제8회〉 마태복음 3장Ⅳ

유동근  
한국은누리신학교교회 목사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두 가지는 다 11절과 연결된 말이다. 그러므로 알곡으로 모아져 곡간에 들어지는 것은 성령세례와 관계가 있고, 쭉정이가 태워지는 것은 불세례와 관계가 있다. 여기서 주님은 손에 키를 들고 계시는 분이시다. 곡식을 추수할 때 먼저 타작하고 그 다음에는 키질을 한다. 키질을 하는 이유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누가 그런 일을 하는가?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 이는 추수의 광경인데 성경에서 추수를 언급할 때는 성도들의 휴거를 가리키기도 하고 부활을 가리키기도 한다.

주님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이것은 심판이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주님은 알곡을 귀하게 여기신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께 의해 받아들여지고 그분을 왕으로 모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알곡이다. 알곡은 다 곡간에 들어가게 된다. 얼마나 큰 기쁨인가? 곡간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의 곡간, 보관하는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옥불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정말 회개치 않으면, 겉으로는 가장 잘 믿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쭉정이가 되어 꺼지지 않는 불, 지옥 불에 들어가는 불세례를 받게 된다.

13-14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때에 예수께서'란 말은 매우 귀하다. 이때에 30세가 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 그 분이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한 일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다. 물론 당시의 세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세례란 다른 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할 때 사용했던 예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이스라엘은 요한에게 나아가 다 세례를 받아야 했다. 그들은 이제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것이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이다. 갈릴리는 멸시받는 땅이며, 요단강은 죄인의 물 속에 장사하는 심판의 장소이다. 주님은 이 땅에서 영광을 얻으려 하시지 않고, 오직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길을 걸어 가셨다. 그분은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가르치셨다. 우리로 말한다면 시골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나타난 것이다. 나사렛, 갈릴리, 멸시받는 곳에서 출발하시어 죽음과 심판의 강으로 여행하신 것이다. 이것이 그 분이 첫 번째로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 내디디신 발걸음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길을 어떻게 초라하게 걸어 가려 하지 않는다. 더욱 영광을 얻고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되는 태세를 갖추어서 사역하려고 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걸음은 초라한 발걸음

이요 알아주지 않는 준비인 것이다. '갈릴리, 요단강 학교 출신'인 것이다.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을 따르면 우리의 길이 이러한 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님은 갈릴리 나사렛, 알아주지 않는 곳, 모든 사람이 죄를 자복하고 물 속에 자신을 장사지내는 요단강에 오셔서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다. 선생이 제자에게 배우려고 하는 것은 무한한 겸손인 것이다. 창조주께서 죄인 중 한 사람처럼 세례를 받으시고자 하심은 형용할 수 없는 겸손이심에 틀림없는 것이다.

마이어(F.B. Meyer) 박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한다. "나는 은혜의 선물이 여러 층의 선반 위에 있는 줄로 생각하여 키가 높을수록 그 여러 층의 선반들 위의 선물들을 받을 줄 알았다. 그러나 후에 계단기를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러 층에 있는 선반에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물들을 받아 가지려 하면 내가 높아지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더욱 나를 낮추고 굽혀야 내려가서 선물들을 하나 하나 얻을 수 있다."

14절에서 요한이 주님의 세례 받으시려 하심을 만류하여 말한 것은 첫째는 하나의 겸손일 수도 있고, 둘째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요한의 주님께 대한 태도는 겸손한 것이고 또 좋은 것이라고 느껴지기도 한다. 그분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 하심은 겸손이실 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교분(交分)을 위한 것이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세례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그분은 고고하게,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죄 없으신 위치에 남아 있지 않으시고 다른 죄인들이 같이 되시어(죄는 없으시지만), 세례를 받으심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이다. 우리 목회자들도 예수님을 닮아 많은 성도들의 수준에 내려가 그들과 자신을 일치시켜 그들의 마음과 함께 하며 사역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첫째로 그분의 무한하신 겸비요, 둘째는 모든 사람과의 교분을 갖기 위함이며, 셋째는 15절의 말씀처럼,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서 오신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 아래 속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책임을 갖고 계셨다. 그분이 행한 의는 다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다. 그러므로 그분은 의를 온전히 지키신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다 침례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한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역사하시는 하나의 규정에 순종하셨다. 그분은 그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다. 여기서 '우리(we)가 이와 같이'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의 대표이심을 가리키고, 우리 모두를 그분 안에 포함시키신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

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주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 오신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의미이다. 이것이 첫번째이다. 또 하나는 그분 자신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넣고 부활 안에서 사역하려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삼 년 반 동안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말을 하시지 않고 오로지 죽은 자의 위치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사셨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분이 어떻게 사역하실 것인가를 표명하시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했다. 오늘 우리도 주 예수님의 세례(침례)에서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이 열릴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하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올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우리가 다 사모하는 바이다. '비둘기같이'에서 비둘기란 성경에서 온유하고 순순함을 의미한다. 주님의 사역의 일생은 비둘기로 상징된 바처럼 온유하시고 한 가지 일(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는 것)만을 주목하셨다.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심으로 사역하시며(11:29), 그분의 사역은 비둘기같이 순결하심으로 성취될 것이다(10:16). 이것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에서 이미 그 특징이 정해진 것이다. 누가복음에는 "행제로"가 추가되어 있다(눅 3:22).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더 많이 추구하고 열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 기도를 많이 해야 하므로 기도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하신 것을 보면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신 것이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주님은 반드시 이러한 길을 가셔야 했다. 그것이 주님께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쨌든 요한은 주님을 소개하는 사람이다. 참으로 주님은 요한보다 크신 분이시다. 그런데 주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자신을 낮추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가까이 물 속에 장사 지내시고 다시 올라 오셨다. 그분이야말로 물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분이시다. 정작 죽어야 할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고 죄인들이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물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니 물 속에 들어가셨다. 자원에서 들어가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어렵고 또 힘들다 해도 순종하는 위치에 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신 것은 그분의 일생, 사역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이며 이사가 61장 1절, 42장 1절, 시 45편 7절의 성취였다. 그분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로서 요한에게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으셨고,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으신 것이다. 죄인을 위한 구속의 역사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모두 관련되심을 볼 수 있다.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아들은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아들 위에 내려오시며, 아버지는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 곧 성부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심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러한 성부의 증거는 사람들의 반대와 멸시와 배척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17절), 중간에(17:5), 마지막에(요 12:28) 선포되어졌다. 이는 이사가 42장 1절의 '고난 받는 종의 노래'를 반영하고 있다. 그분의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하늘의 소리가 '고난 받으시는 종의 노래'와 연결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로 부르심으로 신격의 제 2격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식 인준이 된 것이다. 여기서 '사랑하는'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가페로스'로서 질적인 측면을 강조한 '유일한 사랑'을 의미한다. 또 이 단어 속에 사랑이라는 심정적 측면만이 아니라 선택의 측면도 있다. 이 구절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아들을 유일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안다. '기뻐하는'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도케사'인데, 시제가 초 시간적인 부정 과거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아들에 대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사랑이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이를 문자의 뜻을 고려하여 번역하면 '이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유일하게 나의 선택함으로 사랑하고 기뻐하셨던 자'인 것이다. 성부께서는 그들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는 나의 유일한 영원 전부터 사랑하는 아들이니라'고 확인 인준을 해 주신 것이다. 아를 담고 귀하다. 오! 우리는 3장 마지막에서 왕이신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으시고 완전히 왕으로서 즉위하신 것을 본다.

### 유동근 목사는

유 목사는 대전고교와 충남대학교·경명대대학원을 졸업하고, 미 퍼시픽 신학대학원(Th.M., D.D.), 워싱턴 신학대학원(Th.D.) 등에서 학위를 받았다.

그는 은누리신학교교회 담임목사, 미 퍼시픽 신학교 교수, 국제선교 신학, 신학연구원(IMC) 학장, 예장 국제선교연합총회 총회장, 글로벌 부흥협의회 총재 등을 맡고 있다.

현재까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등 신약 전권을 강해해 책으로 펴냈고 창세기, 모세5경, 여호수아·룻기, 사무엘상하, 전도서·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등도 출판했다.

## 양로병원 노인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대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장애우사랑교회에서 12년째 양로병원 봉사를 하다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치매에서 벗어나고 외로움에서 이기기 위해 매일 찬송가를 암송함으로써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한 찬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를 빛나게 하실 심사위원들(5명) 봉사자들을 초청하오니 바쁘신 시간을 나누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찬양대회 장소와 시간

•장소 : 중양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6월 16일(토) 오전 10시 / 12월 15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1등 1명에게는 100불 상당의 물품

2등 2명에게 각각 50불 상당의 물품

3등 3명에게는 각각 30불 상당의 물품

\*\*\* 그리고 찬송가를 모두 암송한 분들에게는 10불 상당의 물품이 주어집니다.\*\*\*

\*상금 및 상품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아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 L.C.D

### 협찬

필그림 오케스트라, 남가주교회협의회, 남가주한인목사회, 남가주 총후예지부, 뎀엘장로교회, 엘에이사람의교회, Horizon신학대학교, 기독일보, 한솔종합보험, 크리스찬헤럴드, 라디오코리아, 마동환변호사그룹, 백보환의원, Allstar, Precision, 재미남가주황해도모민회, Los Angeles Downtown Lions Club

### 장애우사랑교회

☎ 연락처 : 213-705-0404 / Fax : 213-251-8930

주소 :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 2011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을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 2012년 2월 13일(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장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포로도 할 수 있음

### 본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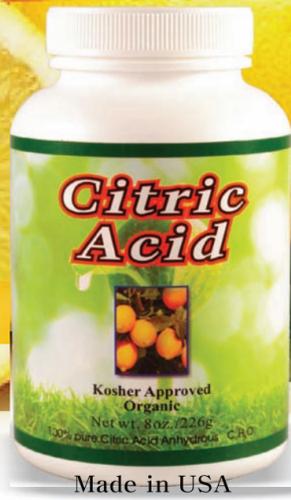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ceusa.com / icce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셔 + 웨스트)



**Citric Acid**  
Kosher Approved Organic  
Net Wt. 8oz./226g  
100% Pure Citric Acid Anhydrous C<sub>6</sub>H<sub>8</sub>O<sub>7</sub>  
Made in USA

### 노벨상 3회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주어 피로 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성분: 구연산 100%

기독일보 창간 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7병을 100불에...

## Citric Acid \$30/ea 1병은 2-3달분

매일의 30배, 레몬의 200배의 농도

###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구연산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음식물의 완전 흡수를 도우며 자연치유력에 또한 최대한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인디토텐신이라는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인슐린과 그 반대 역할을 하는 효소 간에 밸런스가 깨져 생기는데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뇨병을 신속히 호전되게 만든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히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발목 무릎,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유산이 체내에 축적되고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인체 내 젖산 등의 피로물질을 분해하여 피로회복에 효과적이며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높여준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며 면역능력을 증진시킨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강한 체질,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연산 복용 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을 예방하고 병원, 약 값이 절약됩니다.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신부전증 복용 2주 후 소변량이 1500cc까지 증가하게 됨.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찍어 바르면서 나아졌다.
- ★당 수치 220이 한 주 복용 후 110으로 떨어져 의사도 놀람.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이 없어졌다.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르니 나아옴.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 ★검버섯이 구연산 복용 후 한 달이 지나 없어지거나 약해짐.
-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옴.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정상으로 됨.
- ★손발이 저리고 마비증세가 있었는데 복용 한 주부터 사라짐.
- ★비염이나 콧물에 고생했는데 구연산 3개월 먹고 좋아졌음.
- ★늘 서서 일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데 구연산이 해결해 줌.
- ★고혈압 220인데 구연산 먹으면 금방 떨어져 120-135가 됨.
- ★어깨 결림과 루마치스 관절염이 복용 두 주부터 없어졌음.
- ★나물을 무칠 때 식초대신 구연산을 넣으면 꼬들꼬들 참 좋음.
- ★햇바닥 깊이 갈라져 항생제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이틀만에...
- ★밥을 할 때도 국을 끓일 때도 구연산을 타는 습관이 생겼음.
- ★심한 당뇨에 구연산 먹고 저혈당도 경험해보고 당 조절이 됨.
- ★한 달에 5불 구연산이 100불짜리 건강제품보다 월등히 좋음.
- ★7년된 피부암이 석 주 동안 구연산만 먹고 새 살이 돌아났음.
- ★나는 다른 제품이 없어도 구연산만 있으면 건강하게 산다.

# 100% 미국 야생 천종 산삼

### 산삼 가격 파괴 가격표

대	산삼 수형	뿌리당 무게	뿌리수/LB	가격/454g
대	1호-2호 Mixed (60년-120년근)	1호:23-35그램	20-30뿌리	\$1200/LB
		2호:15-22그램		
중	3호-4호 Mixed (20년-60년근)	3호:9-14그램	33-60뿌리	\$900/LB
		4호:5-8그램		

(지난해의 가격에 비해 5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을 내렸습니다.)

### 산삼 기획 상품 가격표

시행일: 2011년 9월 8일

가 격	무 게	뿌리 개수	산삼 수형	중전무게
\$200	90그램	15뿌리-20뿌리	평균 30년근	70그램
\$600	250그램	20뿌리-30뿌리	평균 50년근	200그램



**\$200 / 소매가 \$3,000**

70그램 90그램 / 평균 30년근 15~20뿌리

**\$600 / 소매가 \$3,000**

200그램 250그램 / 평균 50년근 20~30뿌리

# 山蔘

미국 산삼 공인딜러  
Permit Number 90-293202  
60여명의 미국, 인디언 심마니 협력 업체

## 타 업체보다 2~3배 싼 가격

주정부 발행 진품 인증서 첨부된 100% 살아있는 야생 산삼입니다. 인삼, 홍삼이 안맞는 분들도 미국 산삼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산삼 복용법은 씹어서나 달여서 드시도록 상세 소개자를 드립니다.



(올림픽과 크렌셔 북쪽쪽 코너 1층 상가건물)



##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A. 본 점 (213) 365-2100  
O.C. 직영점 (562) 760-2359  
월-금: 10am-7pm, 토: 11am-5pm

# 한국교회 쇠퇴 원인은 '잘못된 신학'

## 정원범 교수, 신학적 관점에서 교회 위기 고찰

“어른의 한복판에서 한국교회가 별거벗겨진 채 못매를 맞고 있지만,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구경꾼들의 손에는 돌맹이가 들려 있다.”

대전신대 정원범 교수가 30일 은사초청 동문상봉 대회 겸 학술 발표회에 강사로 나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신학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했다.

먼저 정원범 교수는 “불교, 가톨릭 인구는 증가하는데 유독 기독교 인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은 교회가 처한 위기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불신과 조롱을 받고 있다. 모든 여론 조사의 부정적 결과는 교회를 향한 여러 지탄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정 교수는 교회 위기의 원인으로 교회·목회자 모습의 변질, 패러다임 전환의 실패, 잘못된 신학 등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국교회의 쇠퇴 상실과 쇠퇴의 근본 원인은 ‘잘못된 신학’이라며 “한국교회의 신학은 복음적 중심성, 기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신학 학술대회가 열려 한국교회의 현 위기를 신학적 관점에서 진단했다.

독 진리의 통전성, 시대 적합성, 변혁적 실천성 등 네 가지 기준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잘못된 신학”의 예로는 기복신앙과 변역신학, 신학과 영성이 분리된 불균형 신학, 권위주의·근본

주의 신학, 변혁과 동력을 잃은 신학 등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교수는 “오늘날 신학은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에 놓여 있다.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목회의 토대가 되는 신학의 갱신이 있어야 한다”며

“십자가 신학, 지성과 감성·보수와 진보의 균형 신학, 예규메카칼 신학, 공공 신학에 힘써야 한다. 한국교회가 회개와 갱신의 노력을 통해 한국사회와 세계의 희망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태진 기자

# “6천년” vs “수십억년” 지구 나이 연대 논쟁

## 창조론 오픈포럼 통해 성경적 해결책 논의



제10회 창조론 오픈포럼이 중앙대 대학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창조과학회는 지구의 나이를 성경 창세기가 밝히는대로 하루를 24시간으로 하는 ‘6일’로 단정한다. 그래서 지구 연대가 6천년 내지 1만년이라는 소위 ‘젊은 지구론’을 주장한다.

이에 반해 지구연대, 혹은 창조연대가 수십억년은 될 것이라는 ‘오래된 지구’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 이들은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적 과학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과학자 내지 신학자들이다. 특히 후자의 대부분은 성경 창세기의 기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선 안 되고, 성경이 정확히 기록하지 않은 이상 구체적인 창조연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젊은 지구’는 아닐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연대 논쟁’은 종종 대립각을 세워 왔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젊은 지구’와 ‘오래된 지구’라는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는 이들의 충돌은 자주 이슈가 되며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창조론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창조론 오픈포럼’이 지난 30일 서울 중앙대학교 대학교회에서 열렸다. 이 포럼에 10회째를 맞은 이 포럼은 인류를 비롯한 이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됐다는 전제 하에, 신학, 철학, 과학 등 다방면에서 창조론에 접근하고 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 선불리 말해선 안 돼

이날 포럼의 가장 큰 주제는 ‘연대’였다. 조덕영 박사(창조신학연구소 소장)가 ‘창조 연대 논쟁의 신학적 딜레마’를 주제로 발표했고 김준호 목사(벡쿠버순복음교회)가 ‘기원 논쟁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조 박사는 “창조 연대 논쟁을 다루는 데 있어 세속 과학의 연구결과를 수용하면 과학적 문제

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문제는 세속 과학과 충돌하는 젊은 창조연대를 주장할 때 발생한다”고 했다. 결국 연대 논쟁의 중심에 ‘젊은 지구론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조 박사는 “칼빈은 창세기를 주석하면서 과학의 문제에 있어 매우 조심스러웠다. 그는 성경을 마치 과학책처럼 다루는 일을 강력히 경계한다”며 “칼빈에게 있어 창조의 6일은 24시간의 여섯 단위가 아니었다. 그에게 있어 성경은 이 세상이 기원 전 4천 년 전에 창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그는 생각했다”고 칼빈을 ‘젊은 지구론자’로 이해하는 것에 반대했다.

창세기는 과학책이나 성경신학적 해석 선행돼야

이후 발표한 김 목사는 이 연대 논쟁을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해 설명했다. 그는 “기원론을 다룰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사람들, 특히 진화론자들이 이를 과학적인 문제로 환원시키는 것인데, 과학 데이터는 어디까지나 데이터일 뿐 창조론도 진화론도 아니다. 사람들이 이를 진화론적으로 혹은 창조론적으로 해석할 뿐”이라며 “세계관의 차이가 기원 논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창조는 기원에 관한 과학적인 이론과 혼동되거나 동일 시되어서는 안 된다. 과학적 탐구의 목적과는 대조적으로 성경 가림의 목적은 윤리적이고 종교적”이라며 “성경이 모든 과학적 사실을 다 발견할 수 있는 과학 교과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과학에 적용시켜 기원 논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더더욱 창세기 자체가 의도하고 있는 성경신학적 관점과 멀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 찬송가 645장의 생생한 해설을 한 권에 담았다

## ‘21세기 찬송가 연구’ 출간한 오소운 목사

“하나님은 음악의 창조주이시요 위대한 음악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만물에게 음악을 입혀 주셔서, 만물들은 하나님께 임하여 주신 곡조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노래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창조력을 주시고 ‘새노래’로 찬양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때 부르는 노래가 찬송가입니다.”

오소운 목사가 지은 <누구나 알기 쉽게 쓴 21세기 찬송가 연구>가 출간됐다.

오 목사는 14살 때부터 찬송가 작사·작곡을 시작하여 찬송가위원회와 찬송가공회의 전문위원으로

주일학교찬송가·어린이찬송가·통일찬송가·신작중보찬송가 등 각종 찬송가 편집을 주관하며 찬송가 연구로 평생을 살아 왔다.

이 책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속칭 ‘21세기 찬송가’의 연구서다. 1894년 언더우드 선교사의 <찬양가>가 발간된 지 100여년, 우리나라에서 찬송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오 목사는 “그러나 대다수가 어느 찬송가는 어느 책에 처음 실렸는지 다 아는 식이어서, 내 마음에 차지 않았다”며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 밝혔다.

645장이나 되는 찬송의 해설을 쓰려다 보니 국내 자료가 너무 부



21세기 찬송가 연구

족하여 영어·일어·중국어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번역해 샅샅이 훑고, 거기 나오는 책 이름을 키워드로 쳤더니 영미 한책방에 100년 전 책들이 매물로 나와 있어서, 이를 주문하여 300원 가까이 되는 고서들을 샀다.

그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 찬송을 검토해 보니 너무 오류가 많았다. 자료를 하나씩 대조하여 고쳐 나가며 해설하다 보니, 너무 방대하여 3권으로 낼까 하다가 결국 독

자들의 편의를 위해 한권에 묶었는데 1,088쪽이나 되어, 얇은 고급용지를 써서 두께를 줄여 초판이 나왔다.

오소운 목사는 이제 <한국찬송가 대사전>을 집필 준비 중이다. 사전(辭典)은 ‘언어를 모아서 일정한 순서로 벌여 실고 낱말이 그 발음·의의·용법·어원 등에 관하여 해설한 책’이지만, 대사전(大辭典)은 백과사전(百科事典, encyclopaedia)이다.

그는 생애 마지막을 이 저서에 걸 각오로 방대한 자료에 더 많은 자료들을 사 모아서 <한국찬송가 대사전(大辭典)>을 펴내겠다는 야심 만만한 각오로 오늘도 땀 흘리고 있다.

이미경 기자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취득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갈릴리신학대학 & 랭귀지스쿨**

GALILEE SCHOOL OF THEOLOGY & LANGUAGE SCHOOL

목회학석사 (M.Div.) 신학석사 (S.T.M.)  
목회학박사 (D.Min.) 신학박사 (S.T.D.)

SEVIS인가 대학, 자체 I-20발행  
ESL 프로그램 (음성학적 영어학습방법론을 개발)

Tel. 213-746-1004 / FAX. 213-746-5004  
1000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기독교일보 창간 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 헤어칼라 전문점

미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30 up \$10 up**

**매직스레이트 \$100 up**

\*단, 칼라만 하시면 \$30.00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칼라는 미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갈라진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미용사들이 찾는 곳

**mystylist HAIR SKIN**

3800 Wdshire Blvd., #2076 L.A., CA 90010 Tel: 213-739-1022  
스킨케어: Tel: 323-919-3994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10:00 PM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칼라 발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오세요)**

LA 최고의 워터-머러리 콘도 상가 2층  
**일서 + 웨스트턴 코너**

# 2012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 가능)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 Fax: 562-926-1025 / www.ptsa.edu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 Fax: 310-793-2297 / www.cohenuiversity.ac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 Fax: 213-381-0010 / www.iruniv.org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 Fax: 818-435-2441 / www.myccu.us

**미 서부 침례신학교**  
 I-20 발급, 장학금 및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가능  
 1월과 6월 2주간 집중 강의로 3년 내에 D.Min. 취득 가능  
 GTU, UC Berkeley로 대학원 과정 수강 및 Ph.D. 수학 가능  
 M.A. in Community Leadership는 평신도 지도자 프로그램

760 South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200-2592 / baptistbob@verizon.net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 hjung3155@gmail.com

**국제비전대학교**  
 정시/수시: (Offline, Online 강의)  
 학위: 학사/석사/박사 (D. Min., D.Miss., Ph. D.)  
 I-20 발행, 각종 장학금 지급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293-5745 / 213-610-4989 / www.vision.edu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신학.철학 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 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3130 Wilshire Blvd #402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8-9800 / Fax: 213-384-7898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A., CA. 90019  
 Tel: 323-731-981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4055 Wilshire Blvd #419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9-8987

**미주개혁신학대학교**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2706 Wilshire Blvd. 1st Floor, Los Angeles, CA 90057  
 Tel: 213-736-6500 / Fax: 213-736-6504 / reformeduniv.org

**아메리칸 신학대학 및 대학원**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2-7356 / Fax: 818-773-8868 / 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Tel: 562-869-7497 / www.mcuniversity.org

**바울성경대학**  
 말씀을 개혁주의 신학안에서 바르고 깊이있게,  
 성경 66권 전체를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언제나, 오실 수 있습니다.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Tel: 562-394-3342 / paulbiblecollege@gmail.com

**윌클리프대학교**  
 Wyclif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는  
 개혁적인 신앙과 바른 성서해석을 가르쳐  
 어두움을 밝히는 지도자, '개혁의 새벽별'  
 존 윌클리프 같은 개혁자를 길러낼 것입니다

14631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604  
 Tel: 562-777-7078 / www.wyclifuniversity.net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 www.aeu.org

## Solution for Tomorrow



### Customized Solution

\*컨설팅부터 시스템 설계, 시스템 시공, 감리, 교육 및 정기점검까지  
 One Stop Solution을 제공하는  
 - Total System Integration  
 \*최신 HD 레코딩 장비를 갖춘 넓고 조용한 Recording Studio를 기반으로 한  
 - Music Production  
 \*최신 HD 영상 장비를 갖춘  
 - Digital Film/Video Production  
 \*최신 장비로 무장한 라이브 음향 영상 조명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 Live Production 까지  
 Laservision World에 오시면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전문 음향, 영상, 조명의 Total Digital Custom Solution을 제공 해드립니다.

Laservision World만이 드리는 다음과 같은 장점  
 1. 풍부한 방송 System 시공 및 컨설팅 경험이 있습니다.  
 2. 20년 동안 미주 한인 사회와 함께 자라온 안정된 회사입니다.  
 3. 음향 / 영상 / 조명에 관한 토달 디자인 서비스를 통해 경비와 시간을 최소화시켜드립니다.  
 4. Supervising System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System Integration을 진행합니다.  
 5. 유지관리 비용을 절약하여 드립니다.  
 6. 에너지 절약 디자인을 최우선시 합니다.  
 7. 시공 후 Training과 Service 를 통해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8. 일에 필요한 License와 책임에 관한 Insurance & Liability를 갖고 있습니다.



**Laservision World / Laservision Structure & Engineering Inc. / wwori.com / AVLgear.com**  
 1961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7 Tel: 323-730-5050 Fax: 323-383-0257 contact@laservisionworld.com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EM)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 (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에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갈릴리션교회**  
하나님이주신신앙행복한교회마리야가말하는교회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장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시뮬하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아반미에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목)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 오후 1:00 오전 7:00 (토)  
수요예배 오후 7: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323) 254-4012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 찬양예배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제자기도회 오후 7:30 **김재을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자녀기도회 오후 7:00 (화-목)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청년·대학부 주일예배후

**나성소망교회**  
제자사역, 건강한중령교회, 행복한가정

4063 Inghram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 550-7377 / lahope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말씀이 살리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EM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제자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7:30 (화) 2부 오전 6:30 (화-금)  
오전 10:30 (수)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샤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박용덕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제자예배 오후 8:00 **박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EM예배 오전 10:00 오전 6:30 (토)  
유치, 유년부, 중고등부 오전 11:30

**남가주헬로십교회**  
온전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 나아가는 교회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김승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집회 오후 7:30

**뉴월드임마누엘교회**

1234 W. 7th St., Los Angeles, CA 90017  
T. (909) 993-4842, (909) 993-2157

1부예배 오전 8:00 한아원남부예배 오후 1:00 **최성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EM/Youth에 오후 12:00 오전 6:00 (토)  
AWANA 오후 12: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매일 마지막주)

**늘푸른선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 92806  
T. (714) 632-9191, 9192 / missionway.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9:45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홍장로교회**  
찬송이신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중고등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청년토요예배 오후 6:00

**둘로스교회**  
예수님의 재지배 주님과 사명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r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이성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30

**라브레아커뮤니티교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사 40:31)

1069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930-1088 / F. (323) 930-0788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손인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학생예배 오후 12:00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한국어 학교 오전 9:30 (토)

**비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15617 Burwood Rd., Victorville, CA 92394  
T. (760) 220-3263, (760) 542-9366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신교와 구제의 삶으로 실현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8:00 **강신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내가 살구나무의 가치를 보낸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 F. (310) 793-2298

1부예배 오전 7:30 5부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EM예배 오후 12:15  
3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4부예배 오후 12:15 새벽예배 오전 5:45 (화-금) /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세상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860-5451 / iloveccp.org

**김수철 담임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  
(다문타운 47 Crocker St.)  
1부 가리예배 오전 7:00  
2부 새벽예배 오전 9:30

**소중한사람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1856 W. 11th Place,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박상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시온성중양교회**  
은혜, 사랑, 선교로 복음의 빛을 비추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EM예배 오전 10:00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EM) 오후 2:00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한중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30 월요일예배 오후 7:30 (수)  
4부예배 오후 1:30 성경집회 오후 7:30 (매일 둘째 금)

**얼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F. (949) 857-9472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후 1:30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1부예배 오전 8:00 **김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정상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요셉선교회**

2728 James M wood Blvd, LA, CA 90006  
T. (213) 245-4090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45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7:30 (토)

**임마누엘선교회**  
성령을 따라 (갈5:16)

1818 S. Western Ave., #200, LA,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2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호를, 소 친 초 정신의 호를, 바른교회인의 호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회**  
서로 사랑하라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말의 침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성현경 담임목사**  
스페인어 오전 10:00 오후 6:00 (토)  
한국어 오전 10시 (월로우심술) 수요일예배 오후 7:45  
오후 12:30 (분당)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결혼교실, 시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김기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50 새벽기도회 오전 5:25 (화-금)  
3부예배 오후 12: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

**LA사랑의교회**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386-2233 / F. (213) 386-2243

강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성감의 사람들'이 되자  
www.samcare.org **박세록 대표**

**SAM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K, Fullerton, CA 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 메릴랜드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 “말만 조금 바뀌어서”

## 목회자 지지 위해 법안 수정... 미국은 지금 동성에 전쟁 중

올해 메릴랜드 주의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논의된다. 작년에도 상정됐다가 하원 표결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바 있는 이 법안이 올해는 종교지도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대거 용어 수정을 실시하는 등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마틴 오말리 메릴랜드 주지사는 23일(월) 20명의 지지 의원을 확보하고 주의회에 수정된 법안을 소개했다. 공화당 중에는 유일한 지지자로 알란 키틀먼 상원의원(하워드 카운티)이 이름을 올렸다. 하원 본의회에는 아직 소개되지 않은 상태로 지난 화요일 지지 의원들을 모으는 등 작업에 들어갔다.

동성결혼을 강력히 지지하는 오말리 주지사는 24일 종교지도자들과 동성커플 및 지지자들을 초청해 조찬을 여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 종교지도자들의 지지를 얻어내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24일 지지 모임에서 오말리 주지사는 “주의회에 종교 자유를 보호하는 수정 법안을 어제 제안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Civil Marriage Protection Act)에는 '종교지도자나 단체들은 고소나 고발로부터 보호된다', '주정부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 단체에 대한 벌금을 물을 수 없다', '주 정부는 종교 단체의 교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특정 단체가 이끄는 종교 프로그램에는 동성 커플들이

배제되도록 하는 세부 정관을 추가로 넣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예로, 동일한 교회가 운영하는 홀리스 웰터와 결혼 상담 코너가 있다면 웰터에서는 동성 커플을 거절하면 안되지만, 결혼 상담 프로그램 제공은 거부할 수 있다는 식이다.

이번 법안 수정은 지난해 동성결혼 합법화를 통과시킨 뉴욕 주에서 종교단체 권리 보호에 대한 법안 용어를 수정한 것이 통과에 주원인이었다고 평가한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24일 법안 지지 모임에 참석한 델먼 코츠 목사(프린스 조지 카운티, 마운트노튼침례교회 담임)는 볼티모어 선지와 인터뷰에서 “교회의 신앙에 반하는 것을 사회가 요구하지 않는다면, 전통결혼의 개념과 동성결혼은 공존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은 모두가 보호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수정은 이같은 반응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메리 엘렌 러셀 총디렉터(메릴랜드 가톨릭 회의)는 “이 법안이 사회에 가져올 변화로 인한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지지할 수 없다”며 “어떤 변화를 쥐도 법안이 바뀌려는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돈 듀이어 의원(공화, 앤 아룬델 카운티)도 “지금부터 매년 매초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부결을 위해 일하겠다”며 “내 남은 임기의 가장 중요한 법안 주제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강력한 반대의



뉴욕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후, 한 시위 참석자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를 펼치고 있다.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메릴랜드 주민투표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에 대한 메릴랜드 내 유권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팽팽한 대결을 보이고 있지만 23일 수정된 새 법안이 주민들의 찬반 양론을 어떻게 갈라 놓을지가 주 변수

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버몬트, 뉴햄프셔, 아이오와, 뉴욕 주 총 6개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며 특별지역으로 워싱턴 D.C.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올해 메릴랜드 주 외에도 워싱턴 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제안,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권나라 기자

[기 자 수 첩]

## 교묘한 동성결혼 합법화 메릴랜드서 통과될까

### 교회의 목인은 세상의 멸망 간파하는 일

올해 메릴랜드 주에서 상정된 법안은 그동안 동성결혼 합법화에 주요 반대세력이던 기독교계를 겨냥해 법안 용어를 수정,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수정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에는 '종교지도자나 단체들은 고소나 고발로부터 보호된다', '주정부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 단체에 대한 벌금을 물을 수 없다' 등을 포함시키고, 교회의 종교 표현의 자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부 목회자들은 “교회의 신앙에 반하는 것을 사회가 요구하지 않는다면 전통결혼과 동성결혼은 공존할 수 있다”며 찬성하기도 한다. 과연 그럴까?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교회에 피해가 없을지라도 차세대 교육은 직접적 타격이 올 것이다. 2004년 동성결혼 합법화가 통과된 매사추세츠 주는 종교 등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간 성행위가 교육되기도 했으며, 동성애 시민결합권을 인정하는 캐나다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시켜도 학부모나 교사가 막을 도리가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수정된 법안은 겉으로는 교회의 편을 들어준 듯 보이지만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본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약간의 방법론 변화일 뿐이다. 마치 '교회에는 보호해 주겠다. 하지만 세상은 내버려 두라'는 식의 타협의 속삭임이 아닐 수 없다. 드문 드문 이뤄지던 동성결

혼 합법화 법안 추진이 올해만 총 3개주(메릴랜드, 워싱턴, 뉴저지)에서 진행 중이다. 매사추세츠 주가 2004년 미국 내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법으로 지정한 이래 밀물처럼 퍼져가는 동성결혼 합법화는 2005년 코네티컷, 2008년 뉴햄프셔, 2009년 버몬트와 아이오와, 정식 수도 워싱턴 D.C.로 이어지고, 2011년에는 경제 중심지인 뉴욕 주가 동성결혼을 인정했다. 이대로라면 미국도 곧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유럽 국가들처럼 동성결혼 인정 국가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성경은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가르친다. 창세기 19장-소돔성의 죄악, 사사기 19장-동성애로 징계를 받은 기브아 사람을 비탄해 레위인 18장 22절과 20장 13절에서 동성애를 “죽음에 처해 마땅한 가증한 일”이라고 선언하는 등 거듭 동성애를 죄로 알고 있으며, 신약에서도 동성 연애를 하남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죄(고전 6:9-10, 딤후전 1:8-11)로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 중에도 '동성애가 왜 죄냐고 묻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인권의 탈을 쓰고, 문화라는 옷을 입고 침투해 오는 동성애라는 죄를 교회에서조차 묵인한다면, 길을 모르고 멸망으로 가는 수많은 양떼들은 누가 인도할 것인가 질문할 일이다.

권나라 기자

## 애리조나 공립학교 성경 가르친다

애리조나 주의 공립학교가 성경을 정식 과목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애리조나 주의 공립 고등학교와 차터 스쿨들은 학생들이 구약이 예술에 미친 영향, 문화과의 연계성 등에 대해 공부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

애리조나 주 의회는 학교가 선택과목으로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게 허락하는 법안을 상정했으며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된다. 이로써 애리조나 주는 조지아, 오�클라호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텍



사스에 이어 6번째로 성경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주가 됐다.

애리조나 주는 종교적 관념을 주입하거나 종교로 인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전제만 보장된다

면 학교에서 성경이나 특정 종교의 경전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성경을 가르칠 시 타종교나 무신론자들로부터 구설수에 휘말릴 것이 큰 부담이었는데 이번에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합법화된다면 학교 측에서는 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공화당 의원인 테리 프라우드스는 “학교와 교사가 여전히 종교에 관해 교실에서 말하길 두려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경을 싫

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을 배울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오는 2013년 6월 30일부터 성경을 문학작품의 관점에서 배우는 선택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이 과목은 연방법과 주법이 규정한다면 중립적 관점에서만 가르치고 배울 수 있으며 다양한 종교적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

김영신 기자

## 소말리아 여성 기독교인

### 이슬람 떠난 죄로 채찍형 당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한 소말리아 여성이 지난 2011년 12월 대중 앞에서 외국 종교인 기독교를 받아들인 혐의로 채찍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소말리아의 사벨레 지역에 있는 자날레 시에서 28세의 기독교인 여성 소피아 오스만은 지난 2011년 11월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 단체 알 샤바암 대원들에 의해 끌려가 갇혀 있다가 지난 2011년 12월 22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조

롱을 받으며 40대의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났다. 목격자에 의하면 소피아는 피를 흘렸으며 정신을 잃었지만 다시 의식을 회복했고, 그녀의 가족이 그녀를 데려갔다고 한다.

4년 전 기독교인이 된 후 지하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 생활을 해 온 소피아는 이번 채찍형에 대한 충격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태다.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792호 발해

## 웨이스 기독교대학교 · 신학대학원

Faith Theological Seminary & Christian College(Tampa, FL)

**SEVIS  
I-20  
상담**

기독일보 창간 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2011년 봄·가을 학기 신입 편입생 모집

본교의 특전 및 소개 **전 세계 50개주가 인정하는 정규학위 수여** (Academic Degree)

1. 본교는 신구약 성경의 정확무오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성경중심의 보수주의 개혁신학을 교육하는 대학으로 유명 정규학위(아카데미 디그리)를 수여하는 신학대학원입니다.
2. 본교는 미국남부 플로리다주 주정부 교육청에 등록(NO 246083)된 신학대학원입니다.

정규 학위 인준 기관

**특전:**

- \* 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 \* AMFED (American Federation Christian College Schools)
- \* CIE (Commission of Independent Education)
- \* SAABC (Southern Association of Bible College)의 정회원에게 가입되어 미국어디서나 학점을 인정받고타신학교와 학점교류도 가능합니다.
- \* 장학금 혜택은 전학생 (50%)

3. 편입학생 및 신입생 접수(타신학교 학점인정) 수시접수
4. 졸업후 미국교단과 한국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을수 있음
5. 명문 유명학교와 학점교류
  - ① Dallas Theological Seminary
  - ② Lee University
  - ③ Oral Roberts University
6. **통신강의 (아카데미 학위취득)**
  - ② Indian University
  - ④ Liberty University
  - ⑥ Regent University

학생모집(학위과정, 학점, 자격, 논문)

On-campus	Intensive and Distance Special Education Program			
학위	학과	학점	자격	특채
대학부 Bachelor 50% 장학금지급	학사-신학(B, TH)	128	고졸 이상자	Faith Theological Seminary & California 학위  · 매달학생회비
	교육학(B,C,E)	128		
	목회학(B,P,M)	128		
대학원 Master 50% 장학금지급	목회학석사(M.P.M)	96	신학대학 및 일반대학 졸업자	
	신학석사(M.Div)	96		
	교육학석사(M.C.E)	96		
박사과정 Doctor Degree 50% 장학금지급	상담학석사(M.C.C)	96	석사학위이상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목회학박사(D.Min)	32		
	신학박사(Th.D)	64		
	교육학박사( D.C.E)	64		
	상담학박사(D.C.C)	64		
	신학 Ph.D	64	신학박사·상담학박사 소지자	
	상담학 Ph. D.	64		

제 1 캠퍼스: 3251 W. 6th St., #101, L.A, CA 90020

수시접수

제 2 캠퍼스: 6882 Selma Ave., Hollywood, CA 90028

(213) 503-5330

수시접수

# 두려움 이기기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리고 다 밟을 수 없는 거대한 영지와 농토, 그리고 수백년을 먹어도 남을 만류의 재물을 쌓아 두는 것은 사람의 두려움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소유가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한 때 예돔과 모압과 암몬은 유다를 기습하여 두려움에 빠뜨렸습니다. 적군은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었고, 유다는 전쟁이 준비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싸움을 위하여 마병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선포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에 이르러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대하 20:9)는 말씀에 의거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 곧 남녀노소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두려워 하거나 놀라지 말라"(대하 20:15)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속에서 여호사밧왕과 온 백성은 그 환경이 주는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 즉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2012년에 임하는 여러가지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이전의 예덴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동산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창 3:10). 죄인이 가진 특성 중의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은 타인에 의하여 살해를 당할까 두려워 하였습니다. 가인은 그러나 두려움을 가진 채로 인류 최초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성을 쌓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딴 에녹성은 나그네가 되어 방랑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에게서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만든 성입니다. 가인의 범죄 이후 사람은 투쟁하면서 성을 쌓고 무기를 들고 자기를 방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범죄와 타락 이후로 모든 문화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습니다. 산 위의 멋진 성과 요새, 그리고 군인과 장군의 창과 칼과 갑옷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인간이 만들어 낸 굴레입니다. 경찰과 법과 보험과 은행, 그



**남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역사를 보는  
바른 안목 있어야  
이기심, 탐욕은  
지도자의 눈 멀게 해**

1976년 모택동이 서거하자 중국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오른 등소평은 3년 후인 1979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흑묘백묘론(黑貓白貓論)을 주장하게 된다. 흑묘(黑貓, 검은 고양이)이든 백묘(白貓, 흰 고양이)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뜻이다. 등소평의 이 흑묘백묘론에 의하여 중국의 공산주의 정치체제 하에 자본주의식 경제체제를 수용하는 중국식 공산주의를 1980년대부터 지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 덕분에 30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세계의 모든 기업이 중국의 시장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기업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나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이런 등소평의 중국식 사회주의가 지금까지도 성공하며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한 국가 안에, 그 지도자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결코 바뀌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핵심을 분명히 붙들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바로 사회주의식 표현대로 한다면 인민이 잘 사는 것이다. 즉,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도자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 혈안이 될 때 독재자가 된다. 그러나 자신의 권력을 통해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에 집중할 때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 이것이 모택동과 등소평의 차이였다. 혁명 1세대인 모택동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공산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백성을 학살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등소평은 3번의 실각과 7번의 암살 위협에서도 늘 그가 붙들려 했던 것은 자신의 권력이 아니라 백성이 잘 사는 것이었다. 이것은 후에 사람들로 하여금 모택동을 잔인한 독재자로 기억케 한 반면, 등소평을 중국 인민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 합리적인 정치인으로 기억케 한 이유였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의 안목이다. 자신이 있는 그 현장에서 과연 자신이 어떤 방향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 할 것인지, 그 시대의 요청

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대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역사적인 안목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한 사람의 지도자의 결정과 방향은 자기 자신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과 인생의 길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역사의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먼저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을 내려 놓아야 한다. 이기심과 탐욕은 시대를 바르게 바라보아야 할 눈을 멀게 한다. 이기심과 탐욕은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야 할 귀를 막아 버린다. 이기심과 탐욕은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다가갈 수 있는 창구를 막아 버린다. 지도자가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을 내려 놓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왜 내가 이 자리로 부름을 받았는가? 왜 나는 이 일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철저한 물음과 되새김 속에서만 자신의 사명이 다시금 발견될 수 있다.

# 강하고 담대하라



**김영길 목사**  
김사한인교회

**담대한 마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라**

어린 아들이 사소한 일에 눈물을 보이면, 아버지의 마음에 "재, 저렇게 마음이 약해서 어쩌나"하는 근심이 스쳐 지나갑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도 얼마든지 강하고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도 목소리를 높여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온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요한복음 16:33).

성경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항상 "담대하게"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담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에베소서 3:12).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긍휼히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했습니다(히브리서 4:16).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담담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위해 담대하게 살아왔던 바울은 그가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디모데 후서 4:7-8)

이것이 담대함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명을 마칠 때까지 담대히 달려가야 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대할 때에 시련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성도들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베드로전서 5:8-9). 외딴 길을 걷다가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두려워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먼 산에서 포효만 할 뿐 절대로 우리 곁에 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해에도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멩  
지사망 :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트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팩스 : (718) 228-950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 눈이 침침하십니까?

**[죽침]** 시력저하, 노안, 안구건조증, 누루증, 백내장, 녹내장, 결막염

죽침은 대나무로된 재질로써, 눈 주위의 근육과 경락을 자극하여 눈 주위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시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탁월하며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죽침의 우수성은 그동안 본원에서 치료를 받은 많은 분들에게 의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초진 무료! T213-380-0853**

## 경산한외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의원 대학 교수  
3030W. Olympic Blvd., #202-203, Los Angeles, CA 90006  
(삼호관광 몰 2층)



# 급성장도 좋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냐

## 불신자 대규모 전도 넘어 영적 성숙성 문제 제기돼

미국의 한 대형교회에서 최근 열린 전도집회가 수적 성장에 대한 비판을 또다시 접화시키고 있다.

스티븐 퍼틱 목사가 이끄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엘리베이션처치(Elevation church)는 지난 29일까지 총 12일간의 전도 집회를 열었다. 에드 영, 페리 노블, T.D. 제이 크스 목사 등 유명 목회자들이 강사로 나선 전도집회에는 수천 명이 다녀갔고 이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여기로 한 이들을 위한 세례식도 열렸다.

엘리베이션처치는 단 6년만에 6개 캠퍼스와 1만명 이상의 교인의 대형교회가 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교회 중 하나로, 처음부터 교회의 주요 목표가 비신자들에게 대한 복음전도임을 분명히 해왔다. 교회의 핵심 가치 선언문은 "당신이 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가 유지하기 원하는 이들보다도 새로 도달하려고 하는 이들에 더 관심이 있다"고 밝히고 있기도 하다.

전도집회 기간 퍼틱 목사는 "우리는 수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고, 엘리베이션처치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성장한 대형교회인 텍사스 펠로우십처치의 에드 영 목사는 "엘리베이션처치는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에게 세례를 줬고 이는 성장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엘리베이션처치의 부흥회는 신학과 기독교 단체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복음주의 교회의 역할 가운데 복음 전도도 중요하지만 제자훈련이 없



엘리베이션처치가 최근 개최한 대규모 전도집회의 장면

는 복음전도는 결국 수적 성장만으로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든콘웰신학교의 데이빗 웰스 교수는 단지 수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며 "균종의 숫자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표식이 되지 않는다"며 "NFL(내셔널 풋볼 리그) 결승 시합전에도 엄청난 균종은 모여든다"고 지적했다.

변증론자이자 라디오 프로그램 <신앙을 위한 투쟁(Fighting for the Faith)>의 진행자이며 엘리베이션처치의 오랜 비판자인 크리스 로즈브로우는 더 나아가 엘리베이션처치가 "듣기에 좋고 대중적인

메시지들을 전하면서 많은 이들을 교회로 모으고 있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는 쉽게 깨지고 오래 가지 않는 플라스틱 장난감을 대량생산하는 중국 공장장에서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워싱턴 소재의 목회자 교육 단체인 9Marks의 존 하딘 박사는 "교회의 성장을 측정하는 척도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교회에 다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교회로 왔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를 진정히 그들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지,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의롭게 했음을 아는지, 죄의 깊은 회개에 있

는지, 신실함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지가 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는 숫자가 쉬운 척도가 될 수 있고 우리 사회에서 또한 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교회도 수적인 것을 추구하기 쉽다"고 전했다.

이같은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해 엘리베이션처치 측은 "우리 교회에서는 많은 교인들이 다양한 교회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며 "교인 중 4,500명이 정규 성경 공부 그룹에 속해 있고, 2,800명이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반박했다.

손현정 기자

# 전 세계 흠어진 교회와 선교지 플로리다에서 네트워크 한다

세계에 흠어져 있는 교회와 선교지, 사역기관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통해 더 큰 사명과 비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Global Network Ministry & Mission Conference (GNM&M)'가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담임 장찬영 목사)에서 열렸다.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 설립 31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현재까지 남부플로리다교회를 통해 세계적으로 흠어져 있는 각 지역별, 분야별 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서로 연결해 교회와 선교지, 그리고 각 사역기관이 동역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22일 주일 저녁 7시 30분, 절망의 늪을 딛고 일어나 소망의 우물을 길고 있는 아이티 어린이 합창단 초청 찬양의 밤을 시작으로 27일 컨퍼런스 참가자 환영만찬, 29일 오전 교회설립 31주년 감사예배, 같은 날 오후 선교포럼으로 진행됐다.

전반적인 선교포럼 이후 30일부터 2월 2일까지는 미주 파트너십 교회 모임이 이어져 구체적인 네트워크의 윤곽을 그리게 됐다.

미주는 물론 한국과 남미, 중국 지역에서 교회 사역 및 문화 사역, 차세대 사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지역과 분야의 발제자들이 나서는 선교포럼은 가장 큰 기대와 주목을 끌었다.

포럼 발제자 및 내용은 백남영 목사(한국 동탄새물결교회, 한국 NET Conference 대표)의 <2012

년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적 과제>, 김태훈 목사(브라질 상파울로 동양선교교회, 브라질 한인교회 대표)의 <브라질 내 한인교회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류재덕 목사(미국 벨리연합감리교회, 미주 Partnership Church 대표)의 <미주 한인교회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전재덕 선교사(중남미 선교 네트워크 대표)의 <중남미 선교 네트워크의 나아갈 길>, 박형석 대표(호산나 미디어 대표)의 <차세대 미디어 사역의 방향>, 김승돈 선교사(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 아이티 파송 선교사)의 <시티슬레이션 선교센터를 통한 아이티 선교방안>, 김모세 선교사(중국 가정교회 사역)의 <중국 가정교회 사역 현황> 등이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의 핵심인 NET Ministry는 'Networking Enhanced Team Ministry'의 약자로 '팀 목회로 강화된 네트워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2009년 장찬영 목사에 의해 시작됐으며, 처음 8명의 목회자가 참석한 가운데 컨퍼런스를 개최해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NET Ministry에서 추구하는 관계는 'Lifetime Relationship'이다. 이 용어는 '관계의 거장'이라 불리는 키이스 페라치(Keith Ferrazzi)가 고안한 말로 멘토나 조연자, 선배의 개념보다 '자일그룹(Inner Circle)'의 개념으로, 서로에게 영적, 감정적, 실제적 그룹이 되어 주는 '좋은 친구 관계'라는 말에 더 가깝다.

박현희 기자

# 예배 퇴거 위기에 연합했더니 상원 만장일치로 개정

## 공립학교 빌려 예배드릴 권리 보장

뉴욕시가 공립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종교기관들에 대해 퇴거 명령을 내린 데 대해 한인교회들을 비롯한 뉴욕시 교회들이 연합해 대응한 결과, 뉴욕주 상원의회에서 24일 공립학교 예배 허용 법안(S6087A)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당초 뉴욕시의 퇴거 명령에 대응해 표표했던 예배기간 연장 수준을 넘어, 최종 목표로 했던 공립학교 예배 금지에 관한 뉴욕주법 개정을 단순히 실현한 쾌거다.

뉴욕주 의회의 이같은 발빠른 조치는 미국교회들을 비롯한 한인 커뮤니티의 공립학교 예배 허용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뉴욕교협은 한인교회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한 바 있으며, 미국교회들이 주축이 된 뉴욕시 교협도 기도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오면서 타 커뮤니티와 연대해 왔다.

뉴욕주 상원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곧 뉴욕주 하원의회에서 다뤄지게 되며, 하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뉴욕 주지사의 승인 절차만 남겨두게 된다.

이번 법안이 상원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하원의회에서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통과



공립학교 예배 허용 법안이 뉴욕주 상원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카브레라 의원이 25일 뉴욕교협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는 교협 직원들과 함께 기도하기도 했다.

가 예상된다.

24일 뉴욕교협 사무실에는 공립학교 예배 허용 운동의 중심에 서 있는 페르난도 카브레라 뉴욕시 의원이 방문해 상원의회의 소식

을 전하는 한편, 뉴욕교협을 비롯한 한인유권자센터 등 한인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감사사를 표했다.

또 앞으로도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반드시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요청했다.

카브레라 의원은 이날의 대화에서 "미국은 신앙이 배경이 된 나라이며 이민사회의 배경 또한 교회가 주축"이라며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타 커뮤니티들도 발전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은 바로 교회에 있다. 공립학교에서 교회가 예배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욕주 상원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지만 하원과 뉴욕 주지사를 설득하는 작업은 계속돼야 하기에 이를 위해서는 공립학교 예배 허용을 촉구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브레라 의원과 대화를 나누는 뉴욕교협 양승호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카브레라 의원의 활동을 격려하는 한편, 회원교회들과 함께 공립학교 예배 허용 촉구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는 예전에 없던 존 리우 감사원장도 전격 방문해 이번 공립학교 예배 허용 촉구 움직임을 뉴욕시 정치권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이 자리에서 존 리우 감사원장은 "뉴욕시의 공립학교 예배 금지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조치에는 반대하며 주민들이 고통받는 이 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뉴욕교협이 주축이 돼 추진된 공립학교 예배 연장 서명은 총 5천 명을 넘어선 상태로 지금도 계속 서명용지가 각 교회에서 뉴욕교협으로 전달되고 있다.

뉴욕교협은 서명된 용지를 한인유권자센터 및 카브레라 의원 등에 전달해 하원 및 뉴욕 주지사를 대상으로 한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대원 기자

# 미주개혁대학 개교 20주년 기념

# 1-20 (F1비자) 학생 모집 합니다

\*최신의 영상시스템 \*최상의 학업 분위기 \*최고의 교수진으로 함께 수업합니다.

▶ 모집학과 : 신학 선교 문예창작 종교음악 목회상담

학교주소: School Address, 3010 Wilshire Blvd #208, LA CA 90010

Toll Free: 1-800-281-2123, Tel: 213-736-6500 Fax:213-736-6504 / Email.refomeduniversity@yahoo.com

Website.www.refomeduniv.org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 웨밀리 자동차

###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 ★ 집·건물 경매 STOP!!! ★

긴급경매 NOT, TRO, QWR, BK 전문  
• 최장기간 연장 "합법거주" 약속 퇴거명령번호, 연방법, 주법 의거할  
• 그외 형사상체, 마약소지및판매, 강도, 강간, 폭행, 배우자폭력, 음주운전...  
"당대 최고의 변호사들이 변호합니다"

메리츠 법률그룹 / 이진우  
18000 STUDEBAKER ROAD, #700, CERRITOS, CA 90703  
TEL: 888-210-1238 / FAX: 888-210-1239

##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2월 24일(금) 시험대비 CDT 치과기공사 면허 응시생 모집  
안정된 기술직업 - 한해 시작해 보세요!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현재 숙성과정 학생모집 (웍스, 포셀린, 메탈, 모델, 의치)
- 전 치과 기공 대학 확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독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월서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 편라이즈 페인팅

### SUNRISE PAINTING

- 페인트, 루핑, 플라밍, 목수일
- IN & OUT SIDE
- 상업, 주택, 아파트 23년 경력

(모든일 직접 정직하게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Paul Seo, TEL : 213-884-7055 / 213-858-8484  
418 S. Newhampshire Ave. LA, CA 90020

## 사과 판매다 각종 조립식 선반전문

New & Used Buy & Sell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마켓용 Gondolas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라임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밑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818-306-7652

## 금 샅니다

최고가 현금매입

10K, 14K, 18K, 금, 은수저 등  
(무료출장매입)

LA: 213-407-8759 / Other: 714-293-9701

##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951) 674-2581 / 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 삼성이 하면 다름이다!

### 귀국· 시내· 타주이사·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한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 편강환

- ▶ 30여개국 해외진출
-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튼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 ✓ 트랜스미션
- ✓ 타이밍벨트
- ✓ 브레이크
- ✓ 튜업정비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 가나 플러밍

물어요!

- ▶ 메인 하수관 300피트 OK(초강력 머신 보유)
- ▶ 나무 뿌리로 자주 막히는 하수관(근본적인 해결)
- ▶ 싱크대, 욕조, 반기 등
- ▶ 노후된 파이프를 동 파이프 교체
- ▶ 새거나 타진 파이프 신속하게 해결
- ▶ 각종 Faucets, 디스포설, 보일러, Toilet(수리 및 교체)

많은 고객께서 다시 찾는 플러밍입니다.

Tel. 213-220-4123

dish NETWORK AUTHORIZED RETAILER

\$29.99 /월, 12개월간

120개 이상의 미국채널  
무료 HD채널 (60개) 이상  
무료 24시간 KBS

디시 네트워크 공인딜러 KNA

www.knamedia.com

1.888.894.8949

##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Tel. 213.447.1101

##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체취함으로 최고의 효과와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류,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 APPLE TREE ACADEMY

Math English E.S.L Writing Bookclub

Pick up, 건강한 신장과 함께  
학교공부 전념을 100% 도와 드립니다.

213.507.5045

## 명 치과

SANG DON CHOI - D.D.S.

213.387.2325  
711 S. Vermont Ave. #Suite 111, LA, CA90005

##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7월세일

10개 기본창문(햇빛차단 Low-E)  
\$2,699 + Tax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 방수·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발코니, 지하실, 창틀방수  
크랙 물 새는 곳, 특수 방수공법  
완벽 시공, 3년 개런티

213-327-9929

## 한국방송 + 미국방송 동시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은들마루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 당일현금

한국구좌 및 신규구좌 가능  
크레딧 700이상(20만이상)

\*유학생 및 귀국자 특별플랜

T. 213-278-4466

## 결혼꽃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GKYM 대회에 참석했던 청년 대학생들이 다시 한번 모여 은혜와 소명을 상기하고 간증을 나누는 집회를 마련했다.

# GKYM에서 받은 은혜 다시 한번 더 이곳에

## 높은 부르심 도전했던 대회 후 RE-UNION 통해 헌신 재다짐

지난 1월 27일 저녁 10시, LA한인침례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GKYM 비전 대회에 참석했던 청년들이 다시 한번 모였다. 작년 12월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해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 높은 부르심(Higher Calling)을 도전했던 GKYM 대회 직후였다.

학생들은 저마다 대회 이후 하나님께 기도 어떻게 응답하셨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나누었다.

UCLA에 재학 중인 테니스 안은 간증을 통해 가족의 권유와 형을 위해 계속 기도해 오던 중 GKYM 대회에 형을 초대했고, 형이 기적처럼 행사에 참여했으며, 또 행사 이후 자기의 기도 제목처럼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었다고 말했다.

5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서 김동환 목사(KCCC USA 디렉터/GKYM 준비위원장)는 "참 제자가 누구인가"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을 설교했다. 김 목사는 "5천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우리는 지나간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가 될 수도 있음"을 알려 주었다.

이날 행사를 통해 많은 학생들은 대회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다시 상기하는 기회를 가졌고, 많은 지역교회 학생들도 한자리에 모여 서로 격려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애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뜨거운 찬양을 인도했던 GKYM VISION 밴드, 크리스천 힙합 댄스팀 IM-PACT, 크리스천 보컬 콰이어 VOC, 크리스천 뮤지컬팀 ENACT, 호산나(HOSANNA) 바니 워십팀의 다양하고 다채로운 공연으로 진한 감동과 은혜를 남겼다.

### 준비위원장 섬겼던 김동환 목사 인터뷰

GKYM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소감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대학생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헌신했다는 것이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먼저 그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천의 청년 대학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선교를 꿈꾸었던 이번 수련회는 참가자 각 개인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감사한 것은 교회와 선교 단체의 연합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50여 개의 교회가 참여했는데 특히 교회의 EM 사역자들의 연합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한 개인이나 교회 혹은 단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라 하는 "더 높은 부르심" 앞에 모든 교회와 단체가 하나되어 협력하는 모습이 너무도 귀했습니다.

이번 대회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들과 특히 젊은 세대들을 향한 비전이 있었습니까?

한국교회에서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말이 나온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바로 이 변함없는 사실을 경험

했습니다.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많은 혼란의 시대가 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헌신하는 새로운 세대를 통해 기어오르는 하나님의 세계 구원의 역사는 지속되고 완성되어갈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지막 대추수의 사역에 미주 청년 대학생들과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된 집회였습니다. 부흥을 구하고 갈망하는 이 젊은이들이 그들의 교회와 가정과 캠퍼스에서 부흥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대회를 통해 교회와도 좋은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선교단체와 교회들 통해 하시고자 하는 사역이 있다면?

젊은이들은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합니다. 교단과 단체 등을 떠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앞장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 폭넓은 연합과 동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계기로 형성된 소중한 동역의 대내외에 향후 불신 청년 대학생들의 진도를 위한 협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10대 선교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개교회와 단체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세대를 주께로 돌리는 일을 위해 합심협력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대학생 선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대학생이 되면 이미 늦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주님과 깊은 만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략적 동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2012년 대학생선교회의 나아갈 방향과 계획, 비전은?

이제 선교대회로 달아오른 헌신의 열기가 여름 단기선교 및 중장기선교로 이어져야 합니다. 선교대회 기간 중 부스와 세미나 등으로 참여한 40여 개의 선교단체들마다 다양한 선교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최소 1000명 이상의 청년 학생들이 개교회 및 단체를 통한 선교에 참여하게 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KCCC도 동부, 서부를 포함해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단기선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캠퍼스 안에서 활발한 사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세대의 한가운데서 영원히 변치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GKYM 준비위원장 김동환 목사(KCCC USA 디렉터)가 이번 대회의 소감을 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도 마련돼 은혜를 더했다.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 무제한

**한달에 \$24.99로 미국 전지역 PLUS 한국 포함 27개국 무제한 통화**

365일 한국어 상담

**情**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1.800.872.2902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http://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지금 아이토크비비 3개월 무료!** (월 \$105 상당) 15개월 계약기간 종료 후 적용

가입하시면, 행사기간 2012년 2월 29일 까지

<b>글로벌 플랜 \$24.99/월</b> Global Unlimited Plan • 미국, 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통화 •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통화	<b>글로벌 플러스 플랜 \$34.99/월</b> Global Unlimited Plus Plan • 한국인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플랜 • 글로벌 플랜의 모든 혜택은 기본 • 한국 휴대전화로까지 무제한 통화
--	---

**무료 부가서비스**

- MyKorea Number 마이코리아넘버\*\* 한국 7개 번호가 필요없어! 나만의 한국 전화 번호를
- iTalkGlobal 아이토크글로벌 15개월 계약기간 종료 후 적용 내 휴대전화로 국제전화를

**2개월 우수 후기 당첨 (1년 무료)** (신영재, California 거주)

우리는 큰아이들이 한국에 있어 자주 한국으로 전화하는 경우가 때문에 아이토크비비가 나에게 딱히 맞는 상품이었다. 그 전에는 한국으로 전화를 하려면 돈을 조금 아끼겠다고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불편하고 결과적으로 돈도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아이토크비비를 사용하면서 불편함과 돈도 절약되는 계기가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이토크비비의 더욱더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화이팅!!! 사진은 사랑하는 막내들과 함께.

아이토크비비 가입 후, 사은 후기를 보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1.800.875.8318 고객센터

고객상담시간 :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해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얻으세요.

**30일 환불 보장!**

\*3개월 무료 프로모션 - 본 프로모션은 행사기간 내 글로벌 플랜 또는 글로벌 플러스 플랜에 가입한 신규 가입자에 한합니다. 총 15개월의 계약 기간이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무료와 적용됩니다. 계약기간 내 서비스 행차시 위약금 (\$69.99) 과 보상 받으신 후 금액 합산 부과 됩니다. 모든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은 iTalk Global Communications, Inc. 에 있습니다. \*\* 무료 부가서비스 마이코리아넘버를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청구되거나 회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게 한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 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0일 환불 보장 기간 이후 서비스 약관상 이의 남용한 경우 이용되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무제한 플랜 가입자에게는 개통비(\$29.99)가 부과 됩니다. 무제한 통화 가능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으며, Puerto Rico, Guam, US Virgin Islands 등 미국 영토의 통화는 무제한 통화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http://www.Korea.iTalkBB.com)을 참조하거나 고객센터 상담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을 생각하시는 가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불보증을 위해 용어 청구서 대신 안전하고 간편한 온라인 크레딧 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토크비비 품질의 자신감

**아이토크비비 품질의 자신감**

**아이토크비비 공인 가입센터 모집**

라인아트 매장을 보유하고 계신분 또는 전화 사업에 관심있으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가입센터 상담전화: 703,349,7544 (통화시간 월~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PH**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SouthBayHyundai Super Store **SHB**

미주에서 가장 큰 단일 현대 딜러-푸엔테힐스 현대, 싸우스베이 현대로 오십시오.  
최대규모, 최다 차량보유, 최신 장비보유, 최고의 서비스, 최저가격보장



기독교일보 창간 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America's Best Warranty  
10 Year/100,000 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2012 임진년 새해에는  
고객님들 가정에  
축복이 가득 하시길  
저희 임직원 모두 소원합니다.  
800대를 수용하는 미주 최대 단일 현대 딜러 푸엔테힐스 현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2012 NEW  
GENESIS



2012  
NEW EQUUS

에쿠스를 구입하시는 분들께 에쿠스 리무진으로 딜러까지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예약 : 제니김



General Manager  
쉐리 워터스



Sales Manager  
저스틴 길



Fleet Manager  
찰리 정



Sales  
케빈 김



Sales  
맥스 정



Sales  
스티브 장



Customer Care  
제니 김

현인타운에서 20분거리 & 오펜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PH 푸엔테힐스 현대**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WWW.PHHYUNDAI.COM](http://WWW.PHHYUNDAI.COM)  
**888.212.6431**

세일즈 시간  
▶ 월-토 9:00am ~ 9:00pm  
▶ 일 10:00am ~ 8:00pm  
서비스 시간  
▶ 월-금 7:30am ~ 6:00pm  
▶ 토 8:00am ~ 2:00pm

품질 보증된  
중고차  
최저이자율  
**2.49%**

FREE CAR WASH  
**\$27.95**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CARFAX**  
VEHICLE HISTORY REPORTS

**SHB 싸우스베이 현대**  
20433 Hawthorne Blvd. Torrance, CA 90503  
[WWW.SBHYUNDAI.COM](http://WWW.SBHYUNDAI.COM)  
**888.531.0890**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s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mazda** 푸엔테힐스 마즈다

[www.mazdaofpuentehills.com](http://www.mazdaofpuentehills.com)

2012 NEW  
MAZDA3 ZOOM-ZOOM



New 2011 MAZDA Miatas VIN:215474  
MSRP \$29,655  
MPH Discount\* \$5,157  
Mazda Loyalty Rebate\*\* \$500



\*Dealer participation in lieu of 0% APR Financing.  
\*\*Must have Mazda currently registered at same address

**SPECIAL RATE 0%**



한국인 상담 제니 김  
1-888-536-0576



Sales Representative  
조성국



17723 E.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최상의 가격  
최상의 서비스